

초등학교 영양사의 직무수행도와 직무만족도

박은정*, 김기남. 충북대학교 식품영양학과

Job Achievement and Satisfaction of Dietitians in Primary School

Eun-Jeong Park*, Ki-Nam Kim. Dept. of Food & Nutrition, Chungbuk National Univ.

본 연구의 목적은 초등학교 영양사들을 대상으로 일반적 특성, 근무환경, 직무수행도 및 만족도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고 아울러 직무수행도와 직무만족도와의 관련성을 조사하는데 있다. 조사기간은 1998년 7월 23일부터 7월 30일까지였고, 충북과 대전, 충남지역에 근무하는 초등학교 영양사들을 대상으로 하여 56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그중 327부가 회수되었고, 유효한 318부가 SAS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처리되었다. 학교급식 운영실태를 보면 단독조리교가 52.8%로 가장 많았고, 급식인원은 400명 이하의 소규모학교가 38.7%로 가장 많았으며, 1200명 이상의 대규모 학교도 19.8%이었다. 영양사의 평균 직무수행도는 4점 만점에 3.37로 나타났고, 업무내용별 수행도에서는 식단관리(3.90)와 구매관리(3.43) 업무의 수행도는 높게 나타났으나 인사관리(2.96), 교육 및 영양상담(2.73) 업무의 수행도는 낮게 나타났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직무수행도의 차이를 살펴 본 결과,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영양사가 5년 미만의 경력을 가진 영양사보다 전체 직무수행도와 직무 내용 중 인사관리, 시설설비관리, 교육 및 영양상담, 급식평가 및 연구업무에서 수행도가 높게 나타났다. 근무환경에 따른 직무수행도의 차이를 살펴 본 결과, 단독조리학교에 근무하는 영양사는 식단관리, 인사관리, 시설설비 관리, 위생 및 안전관리업무에서 다른 영양사보다 수행도가 높게 나타났고, 학교형태에 따라서는 도시형 학교에 근무하는 영양사는 식단관리, 구매관리, 교육 및 영양상담 업무를 제외한 나머지 업무에서 직무수행도가 높게 나타났다. 영양사의 직무만족도를 살펴보면, 상사의 지도와 감독(3.42), 직무자체(3.31), 동료와의 관계(3.11)에 있어서는 비교적 점수가 높았고, 급여(2.19), 승진(2.79)에 대한 점수는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직무만족요소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교육수준에 있어서 전문대학 졸업자가 4년제 대학 졸업자보다 직무자체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결혼 여부에 있어서는 기혼자가 미혼자보다 직무자체와 급여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경력에서는 10년 이상의 경력을 지닌 영양사가 5년이하인 영양사보다 직무자체, 급여, 상사의 지도와 감독에서 직무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근무환경에 따른 직무만족도를 평가한 결과 급식유형에 따라 단독조리 학교에 근무하는 영양사가 다른 영양사보다 상사의 지도, 감독에서 직무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영양사의 직무수행도는 영양사의 직무만족도와 유의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즉 직무만족 요소 중 직무자체($p < 0.001$), 상사의 지도·감독($p < 0.001$), 동료($p < 0.5$)에 대한 직무만족도가 직무수행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